

2026년 산림분야 예산 3조원 시대 개막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산림복지서비스 공간 조성

산림청(정장 김인호)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이 의결되면서 산림청 개정 이래 최초로 3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산림예산은 2007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2017년 2조원 시대를 연지 9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2026년 산림청 예산은 올해 대비 15.6%(+4,091억원) 증가한 3조 260억원 규모로서, 특히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재난 대응과 임업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육성 예산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3조 26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3조 479억 원 대비 213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동시다발 대형산불의 광역·통합 대응을 위한 남부권·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조성(신규, 19억원), 산불대응센터 조성·운영(10개소, 41억원), AI기반 산림재난 탐지 무선통신망 구축(신규, 2억원)도 반영됐다.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규, 10억원) 예산과, 산림재난 대응 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42억원)가 반영됐다.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고통(다도해)산림치유원(신규, 5억원), 제천국립산림치유원(신규, 2억원), 국립영양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신규, 2억원)을 위한 예산과 전남 무안에 산림레포츠센터를 공립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신규, 2억원)도 반영됐다.

또한, 청년임업인 육성에 필요한 산림미래혁신센터(신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신규), 섬숲경관복원(신규), 관악산 및 보림사 주변 비자립 산림생태복원(신규) 등 90억원이 증액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2026년 산림청 예산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산림청 제공)

산림청, 2025년 해외산림청년인재 수료식 개최

‘자살예방 산림·정원치유 TF 2차 회의’ 개최

산림청(정장 김인호)은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자살예방 산림·정원치유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림 분야에서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TF는 박은식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산림치유·정원치유·산림레포츠를 담당하는 산림청 관련 부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예방효과를 검증

하는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등 자살예



▲ 산림청은 1일 산림 분야에서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자살예방 산림·정원치유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산림청 제공)

방지원 전문 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 체계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TF를 중심으로 산림치유, 정원치유, 산림레포츠 기반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5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자

살사망 비중이 높거나 최근 증가 추세가 뚜렷한 청소년, 독거노인, 소방관 등 심리정서위험 직업군과 중장년 남성 등으로 우선 선정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는 자살예방 전문 기관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진이 참여해, 자문 및 효과 검증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자살예방에 특화된 산림·정원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연말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산림·정원치유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청, 2025 해외산림청년인재 수료식 개최

산림청은 서울특별시 스텐포드호텔코리아에서 ‘2025년 해외산림청년인재 수료식 및 간담회’를 열고, 청년, 기업, 학계,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해외 산림현장에서 활동한 청년인재들과의 소통의장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수 청년인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 유공

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으며,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청년인재들의 해외조림, 국외 산림탄소 감축활동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우수 청년인재상을 받은 이정진 씨(24)는 “몽골에 위치한 한-

몽 그린벨트사업단에서 6개월간 근무하며 주민 소득개선을 위한 산림연구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다.”며, “해외산림청년인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분야에서 내가 꿈꾸는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남사려니오름숲, 탐방객 전년 대비 3배 ↑

탐방객 2만 7천 명 돌파… 역대 최대 방문

전국적인 산림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높아진 탐방 수요에 대응해 편의시설 보완과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정수영 임업연구관은 “한남사려니오름숲은 연구와 복지, 생태 보전이 공존하는 숲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한남사려니오름숲 정상(국립산림과학원 제공)

▲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그래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AI 서비스 개방

AI 통합정보서비스로 국민 접근성 강화

과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원천데이터 개방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학계·민간·산업계의 연구 및 기술개발 측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는 1958년부터 수행된 5,600여 건의 연구사업 정보, 연구성과물 25,000여 건, 연구데이터 1,300여 건, 6개 분야 34종의 산림지식 DB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림과학지식서비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산림 관련 정보에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둘은 통합포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과도 연계하여 국민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더욱 강화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과학 빅데이터

약 70년간 축적된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6개 분야 34개 산림지식정보, 외부 연관 논문(특허 정보까지) 약 30만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림과학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좋은 사료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함께합니다.

원료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검사시설을 이용해 신선하고 질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원료배합으로 고효율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료원료를 인정적으로 확보해 축종별, 사육단계별로 원료를 합리적으로 배합해 사료효율이 높은 배합사료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사료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원료를 염가로 구입해 수입원료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제품의 생산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양가치와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와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